

- 서문 -

최근 사회복지분야의 과제와 일본 사회복지학회에 대한 기대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부회장 본고우 히데카즈 (후쿠오카현립대학교)

머리말로서, 필자는 일본 사회복지학회에 대한 기대가 많다고 느끼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들에 대한 연구적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기에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1. 재난 시의 상호 도움과 사회복지

일본에서는 1995(헤이세이7)년의 한신·아와지 대지진, 2011(헤이세이23)년의 동일본 대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저자가 거주하는 규슈 지역에서는 2005(헤이세이17)년 후쿠오카현 서부해역 지진, 2016(헤이세이28)년 구마모토 지진, 2017(헤이세이29)년 규슈북부 집중호우 재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남해 트로프 대지진에 대한 우려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중 하나는 사회 내 사람들 간의 상호 도움입니다. 또한 이에 기반한 재난복지 대비와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상 생활에서의 상호 도움(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및 연계, 특히 자발적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 그 의의를 사회에 알리고, 긴급 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연구 측면에서 촉진하는 것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 인재 확보와 전문성의 양립

다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재 확보와 전문성의 양립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는 복지 인력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생활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회복지활동 분야에는 학력이나 전문성(자격 요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 체계와 이에 따른 채용 인사가 존재하며, 채용 후 실무경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이는 복지서비스 이용자가 가진 특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윤리·도덕관, 생활지원에 필요한 법 제도나 방법론 등을 배우지 않고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확보·향상과 양적 인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 고학력의 개념과 사회 복지학 학위 취득자의 처우 개선

일본 사회에서 '고학력'이란 일반적으로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을 포함한 학위 측면에서는 석사·박사 과정 수료자 등이 고학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일본인 대학원 입학자뿐 아니라 동아시아 등에서의 유학생이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이나 모국에서 취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본 일본의 학위가 가지는 의미가 일본보다 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 학생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학원 연구의 의욕 향상 및 진학에 따른 사회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본 학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대학원에서의 실무경험자가 차지하는 일본인 학생의 비율도 높으며, 대학 등에서의 교원 요건(특히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보아도 담당과목(실습 등)에 따라 실무경험(실무자 교원 등)이 중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학에는 실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분야도 많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박사 등 학위취득자가 적절한 대우(학사 학위와 다른 사회적 평가, 수용 기관·체제·대우 등)를 받고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타

기타로 다음과 같은 3점을 간단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연구의 분야나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1)연구논문의 사회적 기여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회에 환원(데이터 기반의 문제인식 형성이나 제안)하며 활용해 나갈 수 있을지. 특히 미시적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용성이 높은 상황별 복지지원모델 구축연구의 활성화와 집적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특히 논문 등 양산이 요구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연구자들에 대해, 논문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연구의 질적 탐구나 장기적인 연구의 성과를 한 편의 논문으로 정리하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 촉진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균형에 대해 학회뿐 아니라 연구자의 근무처나 사회 자체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과제라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수행과 관련된 현실적 과제로서 (3) 대학 등 교원의 연구 환경상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연구비 배분이 충분하지 않은 교육연구기관도 많다고 느낍니다. 특히 경쟁형 연구비(과학연구비 등)를 확보하지 못한 연구자의 연구 쇠퇴 등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대학 입시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자체의 수 감소 등도 우려되며, 교육기관의 연구자가 입시지원자 확보를 위한 학생모집활동이나 다양한 학내 업무(대학 등의 지역기여활동 등)에 연구자가 과도하게 바쁘게 되는 것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을 둘러싼 과제는 다양하다고 느끼지만, 위와 같은 과제들을 포함해 일본의 사회복지(실천과 연구)의 유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일본 사회복지학회의 노력은 중요하며,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복지학회 제 73 회 가을 학술대회 개최 안내

실행위원장 쿠가 히로토(동지사대학교)

학회 회원들에게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즐거움 중 하나는 대회개최 대학의 학생 식당(학식)에서 식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학회 회원으로 활동해오며 전국 각지의 대학 '학식'을 즐겨왔습니다. 일본 사회복지학회 제73회 가을 학술대회는 **10월4일(토)·5일(일)**에 교토의 동지사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이들 모두, 대회장소인 건물 내 '학식'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대회 참가의 즐거움 중 하나로, 일정표에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지사대학교에 위치한 교토는 10월이 관광 성수기인 데다, 오사카 엑스포가 10월13일(월·공휴일)까지 개최되는 관계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거리에서 대회 참석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빨리 숙박 시설을 예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주제는 "현대 사회복지학의 사상적 기반-이론과 실천의 근원을 묻다"입니다. 세계를 보면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빈곤, 고립, 배제, 분단 등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학회 회원들이 지혜를 모아 나아갈 때입니다. 사회복지학 연구와 실천이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의 사상적 기반에 돌아가 그 이론과 실천의 근원을 재검토하며, 이 시대 속에서의 사회복지학과 학회의 역할을 전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기조 강연과 심포지엄을 대회 주최 측에서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초기 경력 연구자 연구교류회", "유학생과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한 워크숍", "학회 기획 세션(사회복지학에서의 액션리서치 방법)", "특정과제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유연구 발표, 포스터 발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짐 보관실, 도서 판매, 정보 지원, 어린이 돌봄서비스 등 대회 참가자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올해 2025년은 동지사대학교의 전신인 동지사영어학교가 신지마 교에 의해 설립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2005년 문학부 개편을 통해 사회학부가 신설되어, 기존의 문학부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사회학부 사회복지학과로 개편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해에 이 학회의 전국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기억에 남는 대회가 되도록, 교수진, 대학원생, 학부생으로 구성된 모든 스태프가 진심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석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73회 가을 대회 '참가신청 요령' <https://www.jssw.jp/conf/73/entry.html>

일반사단법인 일본 사회복지학회 제 73 회 춘계학술대회 보고

전국 대회 운영위원회 봄 대회 담당
도코로 미치히코 (오사카공립대학교)

대회 주제 : 인력부족 속의 사회복지
개최일시 : 2025년 5월 25일(일) 13:00~17:40
장소 :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 7호관

제73회 춘계학술대회는 2025년5월25일 릿쿄대학교 이케부쿠로 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와케 준코 회장으로부터 개회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에 의한 회원 임명 거부로 시작된 일본 학술회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본 사회복지학회에서는 회원들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법안의 수정을 요구해 왔으며, 법안은 통과되었으나 부대 결의에 학술회의의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이 포함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학의 자치, 표현의 자유, 다양성 존중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학의 원점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4년도 학술상 수상자 2명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린이의 '빈곤 경험' - 구조 속에서의 에이전시와 라이프 찬스의 불평등』으로 수상한 오오사와 마사히라 씨(삿포로학원대학교)는 고등학교 교사부터 연구자로 전환해 질적 연구와 에이전시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해 온 경위를 설명하며, 어린이 자신의 인식과 빈곤 경험을 포착하는 것, 구조 속에서의 에이전시를 포착하는 것,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인트 등을 설명하고 복잡한 에이전시 연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키하라 카츠노부 씨(동지사대학교)는 수상작 『조지 물러와 기독교 사회복지의 원천- "천조(天助)"의 사상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의 집필 경위를 자신의 학생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며, 기독교와의 연관성, 고아원 설립 등 물러의 인생, 사상적 특징, 그리고 선교여행 중 일본을 방문해 그 강연 기록을 정리한 소책자가 야마무로 군페이와 이시이 유지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대회 심포지엄은 나카지마 오사무(분쿄학원대학교), 오바야시 카즈코(도쿄성신회/더블린대학교 일본연구센터), 무로타 신이치(도쿄도립대학교) 세 분을 심포지스트로 초청해 '인력부족 속의 사회복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코디네이터 겸 코멘테이터는 도코로 미치히코(오사카공립대학교)가 담당했습니다.

나카지마 씨는 지역 내 인력부족 문제, 특히 민생위원·아동위원의 결원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인력 충족률의 격차, 지역 공헌이라는 동기가 강한 상황에서 유상화(有償化)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마을회·자치회 조직을 저하 속에서

추천 방법의 재검토 필요성, 고령화의 진행 속에서 일하면서 민생위원·아동위원을 맡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등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복지현장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유료 직업소개소가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을 지적, 복지인재센터 등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바야시 씨는 AI나 로봇 등 기술의 도입·활용 현황에 대해 보고하셨습니다. 동영상 활용해 요양 현장에서의 돌봄이나 커뮤니케이션 로봇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시며, 근거에 기반한 실천의 중요성,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인간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돌봄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무로타 씨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전문성과 탈전문직화의 관점에서 검토했습니다. 영국과 유사한 탈전문직화의 징후가 일본에서도 관찰되고 있으며,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종합적인 복지인력의 확보와 육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전문직에게는 자신의 전문성을 넘어선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점, 소셜워크가 효율적인 실천이나 소비주의적인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분에게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코멘테이터들은 지역 커뮤니티의 변화와 기존에 당연시되던 자원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연결의 방식, 기술의 진화 속도와 도입 비용, '상담'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노동이나 지역 계획 등 인력 부족과 관련된 상황을 직시하고 현상유지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네코 코이치 부회장이 폐회 인사를 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 이공계나 자연과학 분야와의 협력 등과 함께, 사회복지학의 과거를 검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춘계학술대회 전체적으로, 학술상 수상자 강연부터 심포지엄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대회 개최에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행사장 준비와 설치에 협조해 주신 릿쿄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학회는 자격증 및 전문직 양성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위 주제를 중심으로 5 명의 회원님을 모시고 진행한 토론회를 5 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번 호는 2 회차로, 자기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들과 당일 참여한 홍보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이시카와 토시코 회원(간토학원대학교), 구치무라 아즈시 회원(오카야마현립대학교), 히시누마 미키오 회원(일본사회사업대학교), 미와 키요코 회원(메이지학원대학교), 와타나베 유이치 회원(무사시노대학교)

사회·홍보위원회: 이와나가 리에(일본여자대학교), 아리무라 타이시(일본사회사업대학교), 임 세아(릿쿄대학교), 오오사와 토모코(실천여자대학교), 카타야마 히로노부(훗카이도의료대학교)

제 2 회: 자기소개의 계속에서 토론으로

와타나베: 무사시노 대학의 와타나베 유이치입니다. 무사시노 대학에 온 지 올해로 14 년이 되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노인복지와 소셜워크이며,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에 관한 박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과학연구비로, 초고령화 지역에서 커뮤니티 조직화의 실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연구에 임하고 있지만, 이 구현 연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관련하여 소셜워크교육학교연맹(이하, 소교연)의 사업이나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소교연의 활동을 조금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교연의 사업계획에 2023 년도부터 포함된 것이 교육정책의 수립입니다. 각 양성기관은 현재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교육계획이나 커리큘럼에 따라,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지정과목 등을 이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대학 커리큘럼의 약 3 분의 1 에서 절반 정도입니다. 무사시노 대학의 경우 약 절반 정도입니다. 일반교양과목 등이 포함되면 약 3 분의 1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을 졸업할 때 학생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을 습득하고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소셜워크 전문직인지 명확히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교육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맥락에서는 그 안에 포함되는 역량(Competency), 영국에서는

PCF(Professional Capability Framework)라는 개념입니다. 일본판 교육정책과 그 안에 포함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그런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 앞서 커리큘럼 변경의 영향이 컸다는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리큘럼 변경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실습 장소가 두 곳으로 늘어난 것은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무사시노 대학에서는 실습의 시기나 실시 방법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3학년 8 월경부터 10 월 말경까지 한 곳에서 180 시간을 진행하던 것이 두 곳에서 240 시간으로 변경된 느낌입니다. 강의 과목의 시간 수는 줄어들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었다는 느낌입니다. 디플로마 정책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쉬워졌다는 느낌입니다. 실습 시간도 여전히 240 시간으로, 조금 더 늘어도 좋을 것 같지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른 학교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크게 변경된 곳도 있어, 왜 그렇게 크게 변경해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늘었고 두 곳을 가는 것은 확실히 힘들지만, 향후 양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인구 감소나 18 세 인구 감소 등 다른 요인이 겹쳐 보이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복지사와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커리큘럼에서 공통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커리큘럼 개정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구 감소로 인해 지원자가 줄고,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학부나 학과에 진학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 수 조정이나 이에 따른 양성과정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이시카와 교수님이 언급하신 직장 환경이나 조건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목표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대학생뿐 아니라 전국적·국민적 수준에서 논의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나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선생님들의 흥미로운 발언을 듣고, 앞으로의 논의가 기대됩니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홍보위원 선생님들께도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리무라: 저는 미와 교수님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아동가정복지와 통계, 조사방법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 주제에 대한 의견은 자제하겠습니다. 특히 아동관련 분야에서 현재 정책연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 릿쿄대학교의 임 세아입니다. 전문분야는 노인복지분야의 돌봄인력양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능단체의 힘이 강해지면 해당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회에서 이러한 기획을 마련한 것은, 인재양성 연구를 하는 저로서는 사회복지사의 직업 지위와 평가를 향후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의견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도 제가 열심히 배우고자 합니다.

오오사와: 실천여자대학교에 재직 중인 오오사와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 양성보다는 보육사 양성에 중사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신커리큘럼으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근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1~2 과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신커리컬럼의 실습을 마친 4 학년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하고 있는데, 두 곳을 방문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의 경험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으니, 부탁드립니다.

카타야마: 홋카이도의료대학교의 카타야마입니다. 저도 원래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한 현장 경험이 있으며, 그 시절부터 실습생의 실습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사회복지 업무를 보여줘야 할지, 어떻게 그런 실습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현재는 양성 측에 서서 시설 측에 다양한 제안을 하며, 담당 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커리컬럼으로 실습 장소가 두 곳으로 늘어나면서, 특정 현장에 가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구체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관점을 가르쳐야 할지 등 다양한 고민을 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공부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와나가: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자기소개를 듣고, 주제를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제 머리가 정리되지 않아, 지금 자기소개를 해주신 후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면 어떨까, 다른 선생님들의 자기소개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무라: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는데, 커리큘럼 중에서 변경된 부분, 특히 실습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학회가 수행할 역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 토론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논의를 통해서 각 선생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나가: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와타나베 선생님의 대학에서는 신커리컬럼의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 소속 대학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복지사 과정의 학생 중에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 관련 학과의 위치나 역할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의 인기 하락이나 일부 대학의 폐쇄 움직임 등 충격적인 뉴스가 최근 있었습니다. 먼저 교수님들의 소속 대학에서 신커리컬럼 과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지원위원회로부터의 공지

연구지원위원회 위원 강 민호(간사이대학교)/노구치 유키코(무사시노대학교)



연구지원위원회는 초기경력연구자의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대회 프로그램으로 초기경력연구자 연구교류회, 그리고 CS-NET 사업으로 살롱과 릴레이 에세이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운영을 위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경력연구자 연구교류회는 초기경력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과 연구자 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기획입니다. 제1회는 일본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첫날에 진행됩니다. 내용은 초기경력연구자의 '연구·실천 구상보고' 포스터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며, 이전의 스타트업 심포지엄과는 다른 형식으로 연구와 교류를 결합한 자리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재학생, 대학원 졸업 후 약 5년 이내에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인 초기경력연구자라면 발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기경력연구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구나 실천 구상을 포스터로 정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구두발표와 같은 완성도는 필요 없습니다. 포스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력 가진 참가자들과 의견교환을 하거나 조언을 받으며 구상을 더욱 다듬고 연구로 발전시킵시다. 자신의 연구 발전과 연구자 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위원회 CS-NET 살롱은 초기경력연구자들의 편안한 교류의 장입니다. 2022년 제1회 살롱을 개최한 지 약 3년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4일에 제6회 살롱 "사회복지학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 창출 방법을 생각하다"를 하이브리드 형식(대면 장소: 간사이대학교 우메다 캠퍼스)으로 개최합니다. 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친목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구자의 사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의 진상에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새로운 지식'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한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소셜 임팩트'라는 개념에 주목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회에 영향을 주고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공헌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학 연구자로서 소셜 액션이나 비영리법인(NPO)을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방법을 모르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제로 소셜 임팩트를 실천하고 있는 연구자 등을 초청해 이론은 물론, 실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맞서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이후 교류시간을 통해 사회복지학 연구자가 실천할 수 있는 소셜 임팩트의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홍보지가 완성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翻訳：孫宜燮（そん・ういそっふ）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 博士課程

번역: 손의섭(히토츠바시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